

“김혜자 선생님과 연기 호흡 행복해요”

‘눈이 부시게’ 배우 남주혁

JTBC 월화극 ‘눈이 부시게’에 출연하는 배우 남주혁(25)은 성장세가 눈이 부시다.

정춘 로맨스극에서 꽃미남 역할로 자주 등장한 것과 달리 ‘눈이 부시게’에선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집 나간 어머니를 두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이준하를 연기했다.

가장 최근작인 tvN ‘하백의 신부’에서 연기력 논란을 빚은 그는 연기가 부쩍 늘었다는 요즘 칭찬에 “기쁘지만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한편으론 부담스럽다”며 웃었다.

19일 오후 마포구 합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를 통해 만난 그는 일취월장한 연기력의 비결에 대해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했다”고 밝혔다.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연습실 가서 발성 연습을 해요. 딱히 이번 작품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습관은 평생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려고 해요.”

이어 “칭찬받으면 기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있으면 게을러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잡될 수 없는 것이기에 거기에 오래 빠져있진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눈이 부시게’를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그는 “이번 작품은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많은 분이 질 정춘극에 나왔던 배우로 생각하셨죠. 당시엔 드라마 제안도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번 작품은 제게도, 제작진에게도, 다른 배우들에게도 참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 폐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번 작품 이후로 다양한 장르의 대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10부에서 혜자가 알츠하이머 환자로

연기력 눈부시게 향상?

매일 꾸준한 노력 덕분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는 배우 되고 싶어

드러나는 ‘반전’을 그는 다 알고 연기했다고 한다. 남주혁은 “12부까지 대본이 다 나와 있었고 보고 들어갔다”며 “9부까진 혜자가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다. 그걸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준하에 몰입하지 못하고 빠져나올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혜자 역을 소화한 연에게 대선배 김혜자(78)와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춘 데 대해 “영광이자 축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김혜자 선생님과 함께 몇 개월간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며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자 축복이에요. 선생님이 ‘연기 잘 한다’고 얘기해주실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김혜자 선생님과 연기했던 모든 장면은 연기 같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의 시선으로 펼쳐지는 세상을 담았다. 이제까지 치매를 소재로 한 드라마 대부분이 치매 환자가 있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이 부시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 드라마다.

“그런 작품에 출연한 게 감사하죠. 다만 연기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지만 어떤 기억을 잃느냐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행복했던 순간만 기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분도 있고요. 드라마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기억을 잃어가는 건 슬프지만 병에 걸린



다면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고 그 기억만

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기작은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이다. “캐릭터를 이제 막 고민하고 있다”며 말은 백역에 대해 언급을 꺼

리던 그는 ‘스타와 배우 중 뭘 선택하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배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정말 변함없어요. 항상 생각왔던 답은 ‘배우’예요.”

이미숙 ‘침묵’ 언제까지 ...

‘장자연 사건’ 연루 의혹 ... 송선미 “친분 없어. 진실 규명돼야”

배우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과 수사기관의 재수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되면서 고인과 같은 소속사였던 이미숙과 송선미의 사건 연루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2009년 장자연 사망 후부터 이미숙과 송선미가 고인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줄곧 흘러나왔다. 이미숙, 송선미, 장자연이 소속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니저로 일한 유장호 씨가 독립 회사를 차리면서 배우들과 기존 소속사 사이 계약 분쟁이 벌어졌고, 장자연 사망이 이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날 연에 매체 디스패치가 수사 중 진행한 참고인 조사 당시 작성된 이미숙의 조사 진술서를 공개해 이러한 의혹에 더 불이 붙었다.

이미숙은 당시 “장자연이 누군지 몰랐고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됐다. 유장호와 장자연이 문서를 함께 작성한 사실도 몰랐고, 문건도 못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고인의 동료였던 윤지우가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이미숙을 직접 언급하며 “당시 이미숙 매니저가 ‘이미숙 스캔들’



이미숙(왼쪽)과 송선미.

을 무마시키려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인데, 오해가 있다면 오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이미숙 소속사 싸이더스HQ는 19일 “따로 입장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송선미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당시 저와 같은 회사에 있는지조차 몰랐고, 매니저 유보 씨로부터 ‘김 대표 밑에 있는 신인’이라는 말을 얼핏 전해 들은 것이 전부”라며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인과 친분이 조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KBS, 정준영 파문 속 ‘1박2일’ 존폐 놓고 장고

존속해도 자숙 기간 길어질 듯

KBS가 ‘정준영 불가 파문’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간판 예능 ‘해피선데이-1박2일’에 대해 나흘째 침묵하며 사실상 장고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KBS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3년 전에도 비슷한 의혹에 휘말렸을 때 성급하게 복귀시켰다는 책임을 지워 ‘1박2일’의 무기한 제작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또 다른 출연자인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의 내기 골프 의혹이 자사 뉴스인 ‘KBS 뉴스 9’를 통해 불거지자 프로그램 존폐 여부를 비롯한 주요 결정들을 금명간 발표할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

특히 해당 보도로 ‘1박2일’과 정준영 외 멤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동정론’이 일며 KBS에는 굳이 폐지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1박2일’에 폐지가 아닌 존속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자숙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봄이 오나 봄(재)	
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민방위 특집 전국 화재 대피 훈련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2시 뉴스 외전	
2	20 야생여정(재)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45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 통일, 안보 분야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Q	50 원손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건축물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차중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KBS광주 개국특집 ‘봄을 부른다’			
10	55 UHD 습터	00 닥터 프리즈너	00 봄이 오나 봄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중계식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15 꼬마하이로 슈퍼잭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크 - 7요일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량 유치원1~2	14: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중구 대협곡 기행 3부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하늘이 쌓은 만리장성 태항산〉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9:00 엄마 까투리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남쪽나라 오감기행 3부 맛보다, 봄〉
09:30 몰랑	16:15 출동! 슈퍼원스	21:50 EBS 다크프라이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30 랄랄라 뿌우(재)	22:45 극한직업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량 유치원1~2(재)	23:55 EBS 초대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15 엄마 까투리	24:45 지식채널e
〈코다리조림과 주꾸미 콩나물찌국〉	17:30 꼬마버스 타요	24:50 세계의 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14일 丙辰)

<p>子 36년생 변통의 폭이 매우 넓다. 48년생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지지 못 하리라. 60년생 지름길을 택해서 관장 가로질러 가야겠다. 72년생 여태까지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흐름이다. 84년생 진정한 자신이란 희생을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9, 52</p>	<p>午 42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54년생 부드러운 운세다. 66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78년생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90년생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5, 82</p>
<p>丑 37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49년생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61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73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85년생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1, 75</p>	<p>未 43년생 뜻밖의 이익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운수다. 55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67년생 아주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는 발전이 보인다. 79년생 차이가 보인다. 91년생 갈수록 가관이니 참으로 재미있게 되어가는 형세로다. 행운의 숫자 : 20, 71</p>
<p>寅 38년생 차별화 시키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50년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화중지병에 불과 하느니라. 62년생 경제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74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86년생 고수할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8, 53</p>	<p>申 44년생 정면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최선이다. 56년생 제반사를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공물여 왔던 일에 대한 회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80년생 신속성 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92년생 실효적인 가치를 구하자. 행운의 숫자 : 95, 85</p>
<p>卯 39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전을 이룬다. 51년생 틀림없이 유리한 판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63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하고 있느니라. 75년생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자. 87년생 운용 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07</p>	<p>酉 45년생 판이해질 수도 있다. 57년생 현상의 이면까지 살펴야만 낭패를 방지할 수 있다. 69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 될 것이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81년생 세월이 묻혀 버릴 뻔한 비밀을 소상히 듣게 되리라. 93년생 호기가 악재로 변하리라. 행운의 숫자 : 32, 50</p>
<p>辰 40년생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52년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64년생 백 번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76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88년생 훨씬 나은 평가를 받는다. 행운의 숫자 : 27, 73</p>	<p>戌 34년생 직접 얘기해야 좋다. 46년생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58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70년생 자연스럽게 실감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82년생 작은 배가 큰 배보다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28, 46</p>
<p>巳 41년생 외형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53년생 기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입지가 굳혀지는 성국이다. 65년생 대담한 행동을 보일 때다. 77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89년생 관직의 차원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88, 06</p>	<p>亥 35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47년생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커서 낙심했다. 59년생 기탄없이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71년생 파격적인 조건일 것이다. 83년생 낡은 것은 버리되 새 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44, 65</p>